

■ 교회소식 ■

1. 동호회 : 오늘 오후모임은 동호회입니다.
2. 떼제기도회 :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3. 새 책 : 담임 목사의 새 책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가 나왔습니다.
4. 신앙실천 : 한 해의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며 하반기의 목표를 새롭게 세워 보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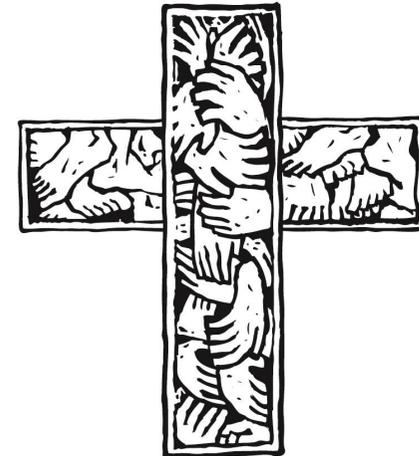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이한림	정원석	

7월	1부 영접위원	이순용	헌금위원	김민화
	2부 영접위원	김정민 이국노 문홍일 이해령 최은미 양경해		
	2부 헌금위원	이한림 정경례		

오늘 식당 봉사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송인선 이해선 송동준 이재선		
다음주식당봉사	진정숙 최윤희 정연경 류형민 강경화 홍윤선 이용석 최형균		
오늘설거지봉사	3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6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신정훈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6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8. 거룩 거룩 거룩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무사히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와 시간을 선물로 받는 느낌입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지친 심신을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쁜 세상을 살며 거칠어진 우리의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차오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막혔던 물길이 열리자 죽어 가던 강물이 살아났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오랫동안 닫혔던 문이 열리자 냉전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분열과 차별과 혐오의 담장을 무너뜨려 주시고 참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130:7,8 인도자
 ▲ 교 독 문 80. 고후 4장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484.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함께
 ▲ 성경봉독 행 26:24-29 I. 인도자
 II. 김지현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사슴이 시냇물을 마중물 찬양대
 II. 참 사랑의 주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정 김기석 김희우 김성순 김수경 김승현 김수진 김영희 김윤수 박상호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정규 이종옥 김정기 김종성 김준수 이순정
 김지윤 정영우 김진옥 김진우 임미진 김창숙 김은종 김희진 박홍재 노신후
 노연정 노진래 최형경 문홍일 박재우 정충원 박지혜 방문석 박혜경 방 민
 방 준 백성래 서정순 성지현 신진식 변혜정 신현일 안미숙 양경해 이계선
 이소순 이근식 신영신 이미희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옥 이성범 권현숙
 이왕준 송상경 이용현 이윤범 나지선 이재우 배이화 이진영 한양미 이호원
 임당재 임성택 홍순위 임주빈 최현옥 임형욱 장영숙 장의림 전영린 김행자
 정성식 정연경 정현숙 조수아 최옥분 최철수 광권희 추현영 한상균 허명선
 흥복선 흥소형

감사헌금

강세기 이소애 김반야 김일랑 김종락 박영신 김태정 김행자 박기태 박영림
 박재영 이현정 방대권 신진식 변혜정 윤선호 임선아 이미리 이범석 류정옥
 이상도 이종후 임설희 임종수 장현희 전길남 김경희 최승주 무명2

생일감사헌금

김극 이건호 정경례

녹색꿈헌금

윤미경 윤수진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누우떼가 강을 건너는 법

- 복효근

건기가 닥쳐오자

풀밭을 찾아 수만 마리 누우떼가

강을 건너기 위해 강둑에 모여 섰다

강에는 굶주린 악어떼가

누우들이 물에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화면에서 보았다

발굽으로 강둑을 차던 몇 마리 누우가

저쪽 강둑이 아닌 악어를 향하여 강물에 몸을 잠그는 것을

악어가 강물을 피로 물들이며

누우를 찢어 포식하는 동안

누우떼는 강을 다 건넌다

누군가의 죽음에 빚진 목숨이여, 그래서

누우들은 초식의 수도승처럼 누워서 자지 않고

혀로는 거친 풀을 뜯는가

언젠가 다시 강을 건널 때

그중 몇 마리는 저쪽 강둑이 아닌

악어의 아가리 쪽으로 발을 옮길지도 모른다

말 씬	유쾌한 수인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새교우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참된 자유의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염려와 걱정, 욕심과 세상의 그릇된 가치에 짓눌려 살지 마십시오. 진리를 붙들고 사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우리를 참된 자유의 세상으로 불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는 자기만의 세상과 편협한 생각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진리만을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많은 이들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동호회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 어린이의 마음으로 읽는 글 ■

재운이

재운이는 일 년 내내/ 옷이 한 벌뿐이다.

지난번 운동회 총연습 때 일이다.

재운이는 그 날도 한 벌뿐인 그 옷을 그냥 그대로 입은 채

깜둥 고무신 신은 발을 짚으로 동여매고

우리 5학년 계주 선수로 뛰었다./

재운이가 힘껏 뛰어 근 십 미터나 뒤지고 있던

우리 청군이 조금 앞서 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무 그늘 밑에 책상을 내어 놓고

팔짱을 낀 채 앉아 보고 계시던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마이크 앞으로 가시더니

청백 계주를 중단시키고

"앞에 가던 아이 빨리 조희대 앞으로 와!" 하셨다.

재운이가 뛰어가자 교장 선생님이 대뜸

재운이 볼때기를 힘껏 두 대 후려치셨다.

재운이는 눈물을 닦으며 어쩔 줄 몰라했다.

우리 청군 응원석은 기가 죽어/ 더러는 또 재운이가 우는 걸 보고

따라 우는 아이도 있었다./ 뒷마을의 미애와 승숙이는

볼때기를 맞는 재운이보다/ 더 굵은 눈물을 똑똑 떨구었다.

너는 운동회 날 이런 꼴로 운동장에 돌아다녔다간 혼날 줄 알아.

학교 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머리도 좀 깎고 운동복도 하나 사고/ 운동화 하나 사도록 해.

올봄에 교육대학을 졸업하셨다는 우리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께 불러 가서

우리 청군이 보는 앞에서 백군이 보는 앞에서
재운이가 보는 앞에서/ 꾸중을 참 많이 들었다.

우리 선생님이 자취하고 계시는 마을 아이들은
그 날 저녁 선생님이 재운이를 데리고 가
손발을 깨끗이 씻겨 주고 머리도 감겨 주면서
우시더라는 것이었다./ 정말 우시더라는 것이었다.

그 마을 아이들은 선생님이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며
우리 선생님 별명을 울보라고 지어 부르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은 대구에 나가
재운이의 운동복, 운동모, 운동화를 사다 주셨다.
그러나 재운이는 아직 한 번도
그 운동복을 입고/ 그 운동모를 쓰고
그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나온 적이 없다.

더욱이 재운이는 운동회가 열리던 날은/ 결석을 하고 말았다.

재운이가 결석했어도 우리 청군은
청백 계주에서 백군을 이기기는 했지만
우리 학년 아이들뿐만 아니고
다른 학년 아이들도 모두
재운이가 계주 선수로 뛰지 못한 것을
몹시 서운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말이 달리듯이 꺾중꺾중
때로는 팔을 빙빙 휘두르면서 달리는
재운이의 모습은 약간 우습기도 하고
우리 5학년에서는 가장 잘 달리기도 했는데

재운이는 일 년 내내/ 옷이 한 벌뿐이다.